

충청남도 R-PACK 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하)는 충남지역 산업인력 수급 Mismatch 해결을 위한 「2007년 충남 R-PACK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평가 실시를 지난 1월 30일(수) 온양관광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충청남도 사업담당관, 외부전문가, 사업담당 충남소재 14개 대학(이하 사업단) 담당자,

충청남도, R-pack사업 자문단, 센터 연구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평가에서는 충남 R-PACK사업 운영방법 및 내용에 대한 평가로 내실있는 충남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남 R-PACK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객관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고도화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력 Mismatch 해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모델이었던 것에 비추어 사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및 충남RHRD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업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인 취업으로의 연계, 각 사업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중점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7년도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 최종보고회를 지난 2월 28일(목) 온양 팔래스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관계관 및 충남RHRD 분과협의회 위원, 충남RHRD 중점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19개)의 사업책임자 및 관계자와 충남RHRD지원센터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2007년도 충남RHRD 중점사업의 최종보고 자리로써 기관별 자체 평가 및 분과협의회 위원 평가와 기관별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적 안배와 함께 현안을 감안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사업에 접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유망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틀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화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으로 교육대상자의 욕구 및 능력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중·장기적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과 RHRD센터에서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공유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HUB역할 수행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